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23.10.13(금)	담당부서	한국어교육	
연락처	323-936-3025/ seung822@kccla.org	담당자	노승환	

**LA한국문화원,
[Korean Culture Day in Nebraska] 개최**



- ▶ 행사명 : Korean Culture Day in Nebraska
- ▶ 행사일정 : 2023.10.20(금)
- ▶ 장소 : CPEH 227, UNL(Univ. of Nebraska-Lincoln) City Campus
- ▶ 주최 : LA한국문화원, Global Experiences Office of UNL
- ▶ 행사문의 : LA한국문화원 한국어교육 담당 노승환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오는 10.20(금) 평소 한국문화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네브라스카주를 찾아 현지 대학생들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해 보는 [Korean Culture Day in Nebraska] 행사를 네브라스카대학(Univ. of Nebraska-Lincoln)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미 중서부에 위치한 네브라스카(Nebraska)주는 대한민국의 약 두 배 정도 되는 면적에 약 2백만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한적한 주로서, 인구는 백인 약 88%, 히스패닉 약 11%, 흑인 약 5%, 아시안 약 2.23%에 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브라스카주의 한인 인구는 약 2,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은 1869년에 개교한 명문 주립 대학으로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주도 링컨에 위치해 있다. 미국의 빅텐(Big Ten Conference, 미국 중서부 지역인 네브라스카주에서 동부의 펜실베이니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역사적인 대학 14곳을 지칭함)의 소속 대학으로 The Cornhuskers 미식 축구팀과 여자 배구팀이 유명하며, 올 해 8월에 있었던 여자 배구팀 경기에는 92,003명의 관중 수를 기록하며 세계 여자 스포츠 사상 역대 최대 관중 신기록이 나왔다.

1980년 LA한국문화원 개원 이래 오레곤, 워싱턴, 유타, 아이다호 등 여러 곳에서 한국문화 홍보 및 체험행사를 진행했지만, 네브라스카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Korean Culture Day in Nebraska] 행사에는 한국의 전통놀이와 함께 한복, 태권도 및 K-Snack 체험 그리고 K-Pop Cover Dance 공연과 워크샵 등 전통에서부터 케이팝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미 현지인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Global Experiences Office of UNL 원장인 Cody Hollist박사는 “네브라스카에도 한류 영향으로 인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 더 친숙해지고, 한국문화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이미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온 UNL 학생들의 한국 체험 이야기도 들어보고, 2024년에 한국에서 진행되는 현장학습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UNL 교수진들의 프로그램 소개도 있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내년 5월 한국에서 4주간 진행될 현장학습 과정(UNL Faculty-led Program)을 준비하고 있는 Chris Heselton 박사는 “이번 행사가 많은 네브라스카지역 현지인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다양성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글로벌 공동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깊은 이해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상원 LA한국문화원장은 “올해부터 문화원 미소재지역의 미 현지인들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부터 K-팝까지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K-컬처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며, “네브라스카에서 처음 개최되는 행사를 계기로 미국내 한국문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K-컬처가 홍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끝/